

# 현안과 과제

■ 엔저에 따른 한일 수출 비교  
- 자동차 분야 타격 본격화

## Executive Summary

### < 요약 >

#### ■ 개요

원/엔 환율 900원 선이 붕괴되고 원/엔 실질실효환율이 2015년 5월 163.8p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독일, 미국을 제치고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엔저 현상 지속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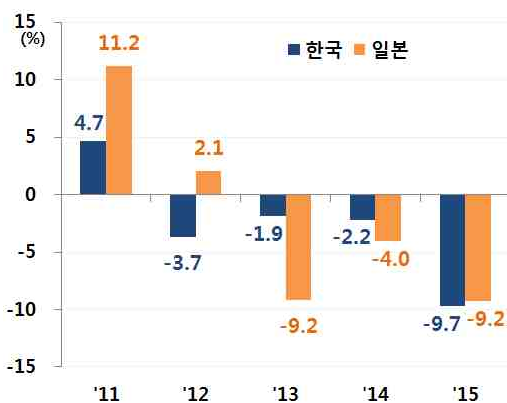
환율은 1차적으로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수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출 물량 변화에 따라 2차적으로 수출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엔저 현상이 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 금액을 수출 가격과 수출 물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 엔저에 따른 한·일 수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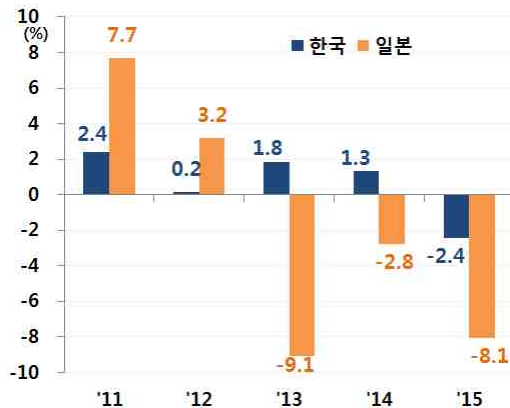
**(수출 가격)** 양국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추세를 분석한 결과, 원화 강세 지속으로 한국보다 일본의 수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양국의 수출 가격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 가격은 2013년 -1.9%, 2014년 -2.2% 하락에 그친 반면, 일본의 수출 가격은 2013년 -9.2%, 2014년 -4.0% 하락하여 2013년 이후 한국보다 일본의 수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섬유·금속·기계·전자 등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일본보다 악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경우, 일본의 수출가격이 2013년 -9.1%, 2014년 -2.8%, 2015년 1~4월 -8.1% 하락하면서 한국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

< 한·일 수출가격 변화율 추이 >



< 한·일 수송산업 수출가격 변화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은 1~4월 대비).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은 1~4월 대비).

**(수출 물량)** 양국의 수출 물량 추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일본은 2015년 들어 수출 물량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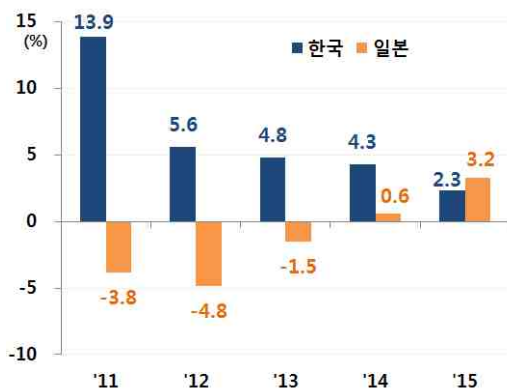
면서 한국의 증가세를 추월했다.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 수출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수출 물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5년 1~4월 전년동기대비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2.3%,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3.2%로 최근 5년래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상회했다.

산업별로는 수송·섬유·금속 산업에서 한국 대비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경우, 2년 연속 감소했던 일본의 수출 물량은 2015년 1~4월 들어 1.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15년 1~4월에는 -5.2%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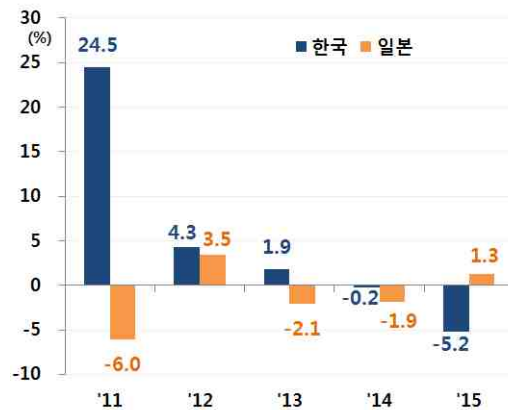
**(수출 금액)** 가격 및 물량 요인 분석 결과, 한국은 가격 하락에도 물량 증가세가 둔화되며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나, 일본은 가격 하락에 힘입어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수출 가격 하락에도 물량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일본은 감소하던 수출 물량이 2014년 이후 증가세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대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해왔으나 2015년에는 일본보다 수출 감소 속도가 확대되었다.

특히 자동차 등 수송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2015년 1~4월 자동차 등 수송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7.5% 하락했으나 일본은 -6.8% 하락에 그쳤다.

< 한·일 수출물량 변화율 추이 >



< 한·일 수송산업 수출물량 변화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은 1~4월 대비).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은 1~4월 대비).

### ■ 시사점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수출 물량 증가는 한국의 수출 물량을 잠식하여 수출 경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응하여 첫째,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안정화 대책,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원/엔 환율의 변동성 축소 및 엔저 현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중소·중견 기업들의 환위험 피해에 대응해 무역보험·유동성 지원·외환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1. 개요

### (1) 현황

#### ○ (환율) 원화의 엔화 대비 강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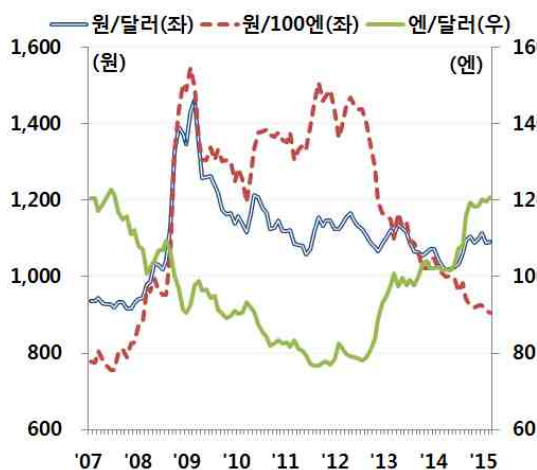
##### - 원/엔 환율 하락세가 장기 지속

- 2015년 6월 23일 원/100엔 환율은 891.5원으로 900원선 하회
- 원/100엔 환율이 900원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 2월 29일(895.6원)에 이어 7년만으로 2015년 4월 30일(897.2원)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6월 22일(899.5원) 900원 선이 재차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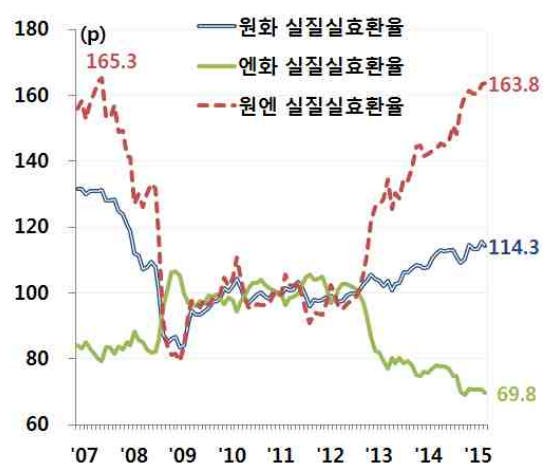
##### - 원/엔 실질실효환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

- 실질실효환율은 각 교역 상대국의 명목 환율에 무역비중과 물가수준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각국의 수출 경쟁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sup>1)</sup>
-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5월 69.8p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강세 기조를 보이며 2015년 5월 114.3p까지 상승
- ‘원/엔 실질실효환율<sup>2)</sup>’은 2015년 5월 현재 163.8p로, 역대 최고치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7년 7월)의 165.3p에 근접

< 환율 추이 >



< 실질실효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BIS 이용)  
주 : 2010=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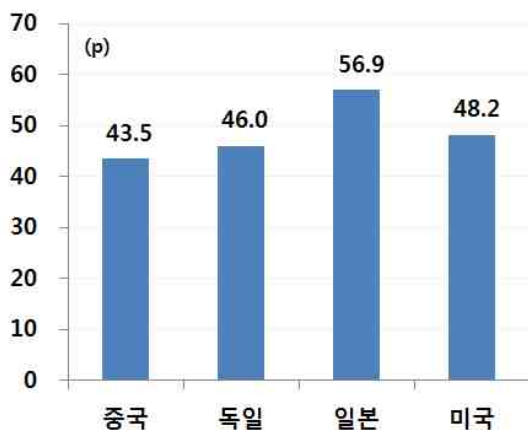
1) 현대경제연구원, ‘실질실효환율로 본 원/엔 환율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44호, 2014.11.19  
2) ‘원/엔 실질실효환율’을 ‘100\*원화 실질실효환율/엔화 실질실효환율’로 정의하며, 수치가 상승할수록 원화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을 의미함.

○ (수출) 한국은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아 엔저현상 지속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은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 한국은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원/엔 환율 하락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대비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2013년 기준 한국과 일본과의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sup>3)</sup>는 56.9p로 중국, 독일, 미국 등 여타 경쟁국보다 높음
  - 즉,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수출 경쟁이 높기 때문에 원/엔 환율 하락이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

- 최근 한국은 대일본 수출 뿐만 아니라 대세계 수출 또한 둔화 추세가 지속
  - 한국의 대세계수출은 2012년 -1.3%, 2013년 2.1% 2014년 2.3%, 2015년 1~5월 -5.7%로 수출 둔화 추세 지속
  - 한국의 대일본수출은 2012년 -2.2%, 2013년 -10.7%, 2014년 -7.2%, 2015년 1~5월 -18.5%로 대세계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
  -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강세는 한국의 대일본수출 경쟁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까지 하락시킬 우려

< 주요국과 한국간 수출경합도('1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UN Comtrade 이용).  
 주 : 1) HS코드 4자리 기준  
 2) 100에 가까울수록 수출 경합도 심화.

< 한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5년은 1~5월 대비.

3) 수출경합도 지수(ESI)는 두 나라 상품간에 수출시장에서 경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수출경합도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하여 수출시장에서 경합관계가 높음을 의미.

○ (연구배경)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어 수출 부진 우려가 제기

- 최근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지속

- 2013년 대비 2015년 5월 원화는 달러화 대비 0.3% 평가절상되었지만, 엔화는 -19.1% 평가절하 되면서 원/엔 환율 급락
- 최근 엔화 실질실효환율이 역사상 최저치에 근접하는 등 엔화 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원화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

-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원화 강세는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켜 수출물량 감소·시장 점유율 하락 등 수출 경기까지 부진할 우려

- 원/엔 환율 하락 시 일본 수출 기업은 달러 표시 수출 단가를 유지함으로써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 효과를 누리거나, 수출 단가를 내림으로써 수출 물량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
- 일본 기업이 달러 표시 수출 단가를 인하하는 전략을 선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물량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하락 위협 발생

○ (연구방법 및 목적) 엔저현상이 한·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금액을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으로 구분하여 분석

- 환율은 1차적으로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수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출 물량 변화에 따라 2차적으로 수출금액에 영향

- 수출 금액 = 수출 가격 × 수출 물량으로 구성
- 수출 가격이 하락하며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경우 총 수출 금액은 증가하며, 수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총 수출 금액은 감소

- 엔저 현상이 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 금액을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으로 구분하여 분석

- 총 수출 금액은 수출 가격 변화와 수출 물량 변화에 모두 영향을 받음
- 엔저 현상이 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 금액을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 2. 엔저에 따른 한·일 수출 비교

○ (전체 수출가격) 원화 강세 지속으로 한국보다 일본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이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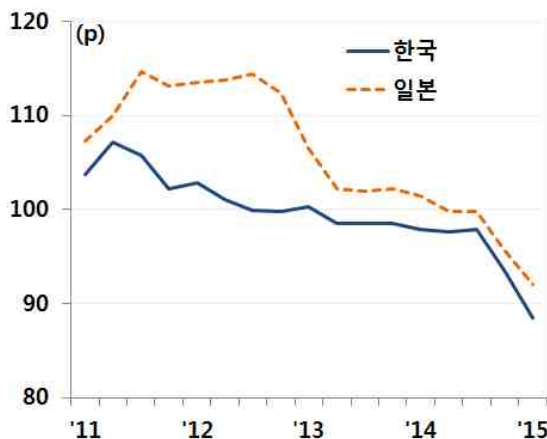
- 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수출 상품의 가격 변동 측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수출물가지수<sup>4)</sup>와 일본 재무성의 Export Unit Index를 이용<sup>5)</sup>(달러 기준)
- 수출물가 지수는 2011년 1분기 한국 103.7p, 일본 107.3p, 2015년 1분기 한국 88.4p, 일본 92.1p로 양국 모두 수출 가격이 전반적 하락세

-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현상으로 2013년 이후 일본 수출가격 하락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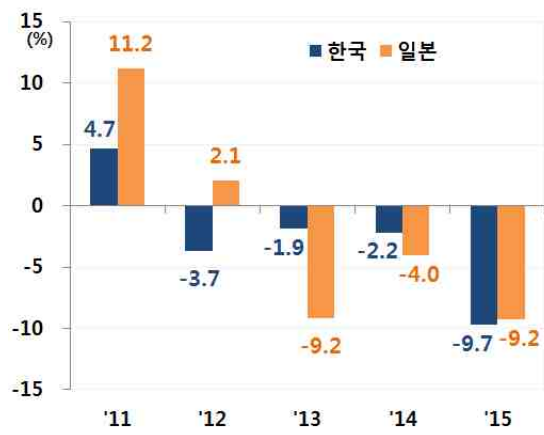
- 2012년 말부터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달러표시 수출제품 가격 하락으로 일본의 수출 가격은 2013년 -9.2%, 2014년 -4.0% 하락
- 단, 2015년 1~4월 전체 수출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9.7%, 일본은 -9.2%로 양국의 하락세가 유사<sup>6)</sup>

< 한·일 수출가격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 한·일 수출가격 변화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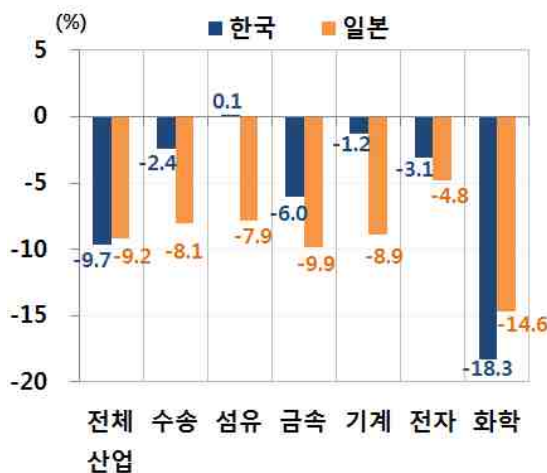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은 1~4월 대비).

- 수출금액지수 및 물량지수와와의 연계를 위해 시차조정 수출물가지수(수출금액지수/수출물량지수)를 적용.
- 한국은 수출물가-물량-금액지수 산출시 선박을 제외하나 일본은 선박을 포함. 그러나 일본의 선박수출 비중은 2014년 1.9%로 높지 않아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국의 선박수출 비중은 약 7%).
- 한국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총수출 비중은 13.4%에 달하는 반면 일본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총수출 비중은 5.7%에 불과함. 이에 따라 총수출품목의 평균 가격 지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일본보다 유가 하락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엔저에 따른 원화의 평가 절상 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으로 판단됨(석유제품 HS27, 석유화학 HS29, 2014년 기준).

○ (산업별 수출가격) 특히 수송·섬유·금속·기계·전자 등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일본 대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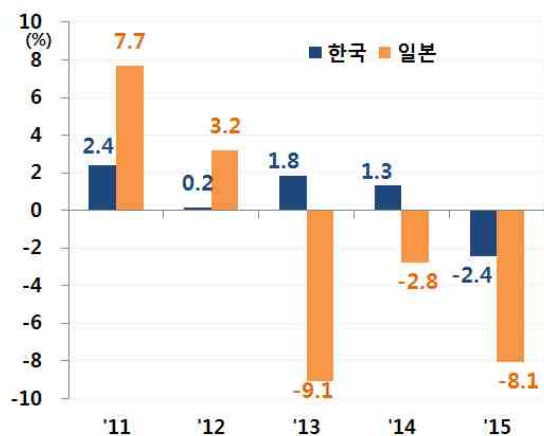
- 2015년 현재 일본은 전산업에서 수출가격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수송, 섬유, 금속, 기계, 전자 산업에서 한국보다 수출가격이 더 크게 하락
  - 2015년 1~4월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수출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2.4% 하락했으나 일본은 -8.1%로 한국 대비 하락률이 높음
  - 2015년 1~4월 섬유 산업의 수출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0.1% 증가한 반면 일본은 -7.9% 감소
  - 2015년 1~4월 금속 산업의 수출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한국 -6.0%, 일본 -9.9%, 기계 산업은 한국 -1.2%, 일본 -8.9%, 전자 산업은 한국 -3.1%, 일본 -4.8%로 한국이 일본보다 하락률이 낮음
  - 단, 화학 산업은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가격이 더 크게 하락
- 수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동차 등 수송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 가격이 급락
  - 수출 경쟁도가 가장 높은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경우<sup>8)</sup>, 일본의 수출 가격이 2013년 -9.1%, 2014년 -2.8%, 2015년 1~4월 -8.1% 하락

< 한일 산업별 수출가격 변화율(2015년 1~4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 한일 수송산업 수출가격 변화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은 1~4월 대비).

7) 섬유 산업은 2014년 총수출의 약 2.8%를 점유하며 수출 13대 품목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보고서 분석에 포함(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5월 수출입동향 자료 참조).

8)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수출경합도(ESI)는 수송 68.0p, 석유화학 62.6p, 기계 61.6p, 금속 51.5p, 전자 49.7p(2013년 기준).



○ (전체 수출물량)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일본은 2015년 들어 수출물량이 본격적인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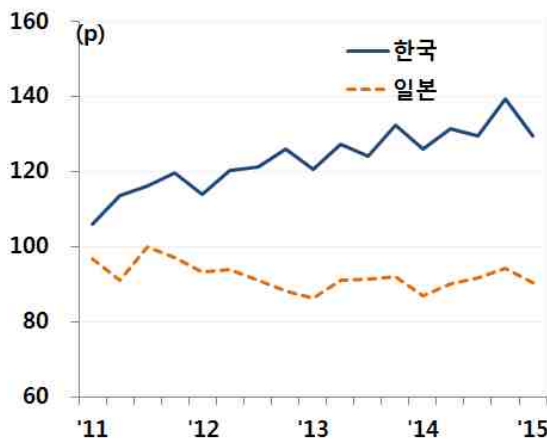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한국과 일본의 수출물량은 증감을 반복

- 수출 상품의 물량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수출물량지수와 일본 재무성의 Export Quantum Index를 이용(달러 기준)
- 한국의 수출물량지수는 2011년 1분기 106.0p, 2015년 1분기 129.4p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감을 반복
- 일본의 수출물량지수는 2011년 1분기 96.8p, 2015년 1분기 90.3p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보합세 기록

- 한국의 수출 물량 증가세는 2012년 이후 둔화되는 반면, 일본은 감소하던 수출 물량이 2014년 이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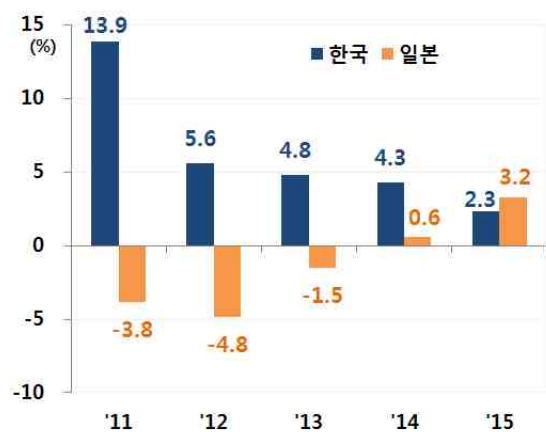
- 2015년 1~4월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2.3%,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3.2%로 최근 5년래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상회
-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수출 가격이 2013년부터 하락함에 따라 2014년 이후 수출 물량 증가 추세 관측
- 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수출 물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5년 1~4월에는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을 하회

< 한·일 수출물량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 한·일 수출물량 변화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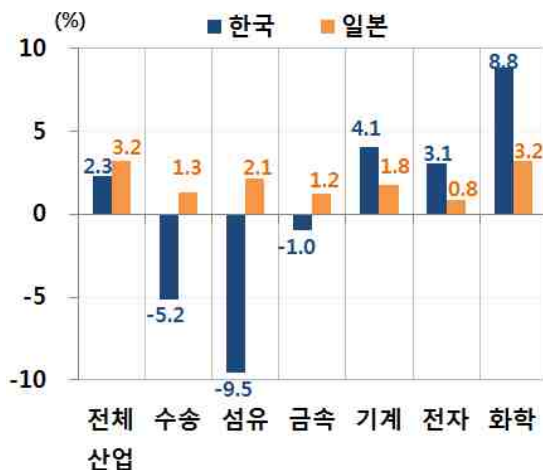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은 1~4월 대비).

○ (산업별 수출물량) 특히 수송·섬유·금속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물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의 수출 물량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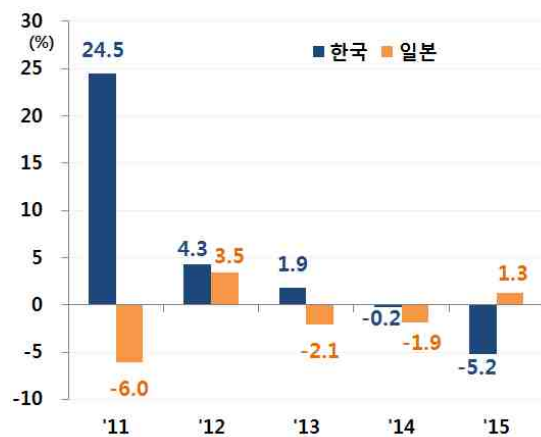
- 일본은 전 산업에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송, 섬유, 금속, 기계 산업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개선 효과가 뚜렷
  - 2015년 1~4월 현재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5.2% 감소했으나 일본은 1.3% 증가
  - 2015년 1~4월 섬유 산업의 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9.5% 감소했으나 일본은 2.1% 증가
  - 2015년 1~4월 금속 산업의 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1.0% 감소했으나 일본은 1.2%로 한국 대비 증가율이 높음
  - 2015년 1~4월 기계 산업의 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4.1% 증가했으나 일본은 1.8%로 한국 대비 증가율이 높음
  - 단, 전자 및 화학 산업에서는 한국의 수출 물량 증가세가 일본을 상회
- 특히, 2015년 들어 자동차 등 수송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 물량이 회복세
  -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경우, 일본의 수출 물량은 2013~14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1~4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며 회복세
  - 반면, 동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물량은 2014년에 이어 2015년 1~4월에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지속

< 한일 산업별 수출물량 변화율(2015년 1~4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 한일 수송산업 수출물량 변화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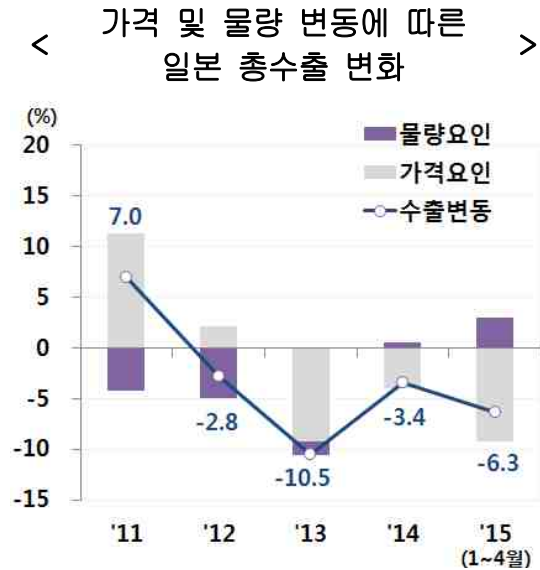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은 1~4월 대비).

○ (전체 수출금액) 한국은 물량 증가세가 둔화되며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나, 일본은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14년 이후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 개선

- 한국은 수출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2015년에는 일본보다 수출 감소 속도 확대
  - 수출 상품의 금액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수출금액지수와 일본 재무성의 Export Value Index를 이용(달러 기준)
  - 한국의 총 수출금액은 2012년 이후 2%대의 미약한 증가세에 그치고 있으나 일본의 총 수출금액 감소세는 2014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
  - 단, 2015년 1~4월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양 국 모두 수출금액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한국이 일본 대비 더 큰 폭의 수출금액 감소율 기록<sup>9)</sup>
- 가격 및 물량 요인 분석 결과, 한국은 수출물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일본은 엔저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수출물량 증가 본격화<sup>10)</sup>
  - 한국은 2012년 이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세가 둔화
  - 일본 역시 2012년부터 수출 감소 추세가 나타났으나 2014년 이후 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증가 추세가 나타나며 수출이 개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9) 통관기준 수출은 2015년 1~4월 한국 -4.3%, 일본 -6.2%로 분석과 다소 차이가 있음. 통관기준 수출은 선박이 포함되나 수출금액지수에는 선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됨. 한국의 2015년 1~4월 선박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4% 급증하면서 총수출을 견인함. 본 보고서에서는 2장과 연구 대상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통관기준 수출증가율이 아닌 수출금액지수 증가율을 적용.

10) 한국은 물가지수를 사용했으나 일본은 자료의 부재로 단가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함. IMF는 단가지수보다 물가지수를 권고하는데, 이론적으로 상품의 품질변화로 인한 가격변동은 가격변화가 아닌 물량변동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물가지수는 이에 충실한 반면 단가지수는 이를 단가변동에 반영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 따라서 일본도 한국과 동일하게 물가지수를 적용하면 수출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고 수출물량은 더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됨.

○ (산업별 수출금액) 특히 자동차 등 수송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 위축

- 한국과 달리 일본은 모든 주력 산업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 발생<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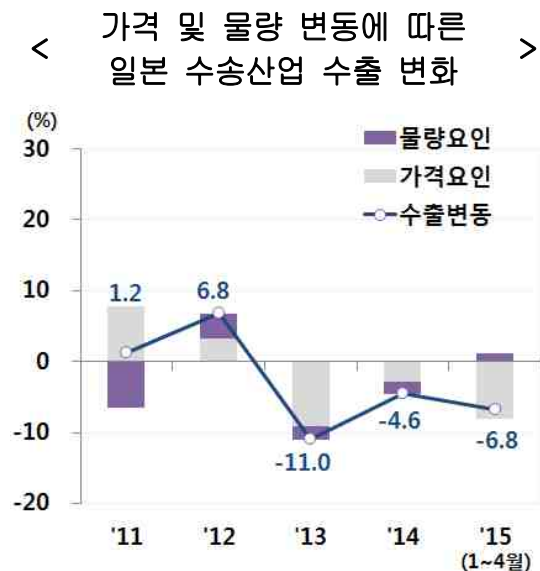
- 2015년 1~4월 전년동기대비 한국의 기계·전자·화학 산업은 수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송·섬유·금속 산업은 수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동기간 일본은 모든 주력 산업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 발생

- 특히 2015년에 자동차 등 수송산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 위축세 심화

-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경우 한국은 2011년 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하며 27.5%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물량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 되면서 2015년 1~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7.5% 감소
- 일본은 엔저에 따른 달러표시 수출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1~4월 수출 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회복세가 진행
- 2015년 1~4월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7.5% 하락했으나 일본은 -6.8% 하락에 그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11) [별첨] 참고.

### 3. 시사점

○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수출 물량 증가는 한국의 수출 물량을 잠식하여 수출 경기를 악화시킬 우려

- 원/엔 환율 하락은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 제품에 비해 국산 제품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과 일본은 최근 수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일본은 엔저를 기반으로 수출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 원/엔 환율 하락은 대일본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

- 한국은 물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가격 하락이 물량 증가를 견인하면서 수출 개선세가 나타남
  - 한국은 2011년부터 수출 가격이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2년 이후 수출이 2%의 미약한 증가세에 그침
  - 일본은 2012년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이는 엔저로 수출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2014년부터는 물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출 감소세가 개선되기 시작

- 글로벌 수요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수출 물량의 증가는 시장 점유율 상승을 넘어 한국의 수출 물량을 잠식할 우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수요 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의 수출 증가는 경쟁국의 수출물량을 잠식할 우려
  - 한국은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물량 확대는 곧 한국의 수출 물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

○ 엔저 지속에 대응하여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및 국제공조 강화로 엔저 현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한편, 우리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속

-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안정화 대책,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원/엔 환율의 변동성 축소 및 엔저 현상 장기화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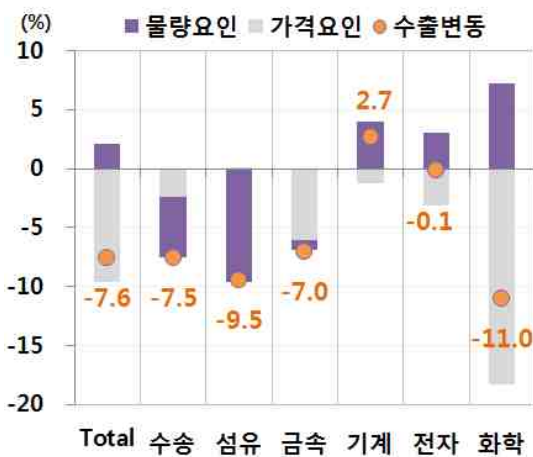
- 한-일간 수출경합도가 높은 만큼, 원화를 엔화에 동조화함으로써 원/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특히, 외환시장 안정화대책 마련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엔저 현상의 장기화에 대비
  - 또한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원/달러 및 엔/달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발생 시 상시 대응하여 환율의 변동성 축소
-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피해에 대응해 무역보험 · 유동성 지원 · 외환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
-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서 환위험에 노출된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 등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환율 급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 리스크 관리 지원
-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켜 일본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
  -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일본과의 제3국 수출시장 경합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지속
- 장기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재검토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은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절한 투자 운용 계획을 실천해야 함
  -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함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별첨】 한·일 산업별 수출 금액 변화율(2015년 1~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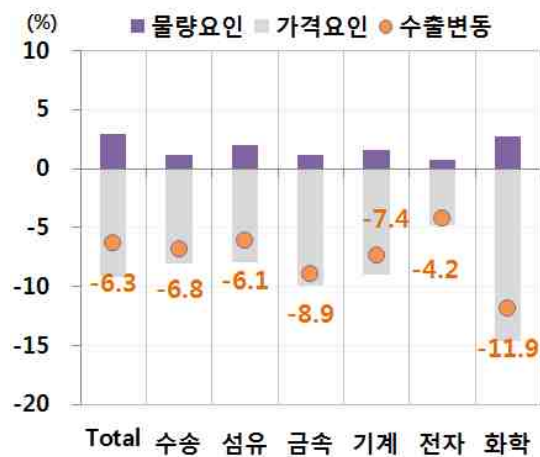
- 2015년 1~4월 수송·섬유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 대비 수출 감소세가 뚜렷
    - 2015년 1~4월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7.5% 하락했으나 일본은 -6.8% 하락에 그침
    - 2015년 1~4월 섬유 산업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9.5% 하락했으나 일본은 -6.1% 하락에 그침
  - 2015년 1~4월 금속 산업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한국 -7.0%, 일본 -8.9%, 전자 산업의 수출 금액은 한국 -0.1%, 일본 -4.2%로 한국 대비 하락률이 높음
  - 2015년 1~4월 기계 산업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2.7% 상승했으나 일본은 -7.4% 하락했으며, 화학 산업의 수출금액은 한국이 -11.0% 하락했으나 일본은 -11.9% 하락
- 한국은 수송·섬유·금속 산업에서 가격 하락에도 오히려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은 주력 산업군에서 모두 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 발생
    - 2015년 1~4월 전년동기대비 한국의 기계·전자·화학 산업은 수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송·섬유·금속 산업은 수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동기간 일본은 모든 주력 산업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 발생

가격 및 물량 변동에 따른 한국 산업별 수출 변화(15년 1~4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

가격 및 물량 변동에 따른 일본 산업별 수출 변화(15년 1~4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이용)  
주 : 2010=100 기준. 달러 기준.